금융위원회	보 도 해 명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11.28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(02-2100-2530)	담 당 자	양 병 권 사무관 (02-2100-2535)

제 목 : 서울경제(11.29일, 가판) 「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」 제하의 기사 관련

<보도 내용>

□ 서울경제는 「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(11.29일, 가판)」 제하의 기사에서,

○ "금융당국이 부동산대출 개인간거래(P2P) 회사들의 대출 취급 한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. …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하로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."

○ "금융위 관계자는 "아직 한도를 어떻게 규제할지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검토중"이라고 밝혔다." 라고 보도

<해명 내용>

1 금융위는 최근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 및 과도한 PF대출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P2P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중

2 다만, P2P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방식이나 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

3 또한, 금년 12월중 예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이를 반영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

4 금융위는 P2P대출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투자자, 대출자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